

경제지문,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학생들의 공통된 질문

“경제지문만 읽으면 턱턱 막혀요”

“경제지문 볼 때마다 글만 읽고 이해가 안가요”

문제점은 단순하다.

“경제지문만 읽으면 턱턱 막혀요”

위 학생들은 글을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한다. 왜 턱턱 막히느냐, 그것은 글을 읽을 때 **생각없이** 읽기 때문이다. 글을 잘 읽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

아래 문장을 읽고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자. 절대 밑에 있는 예시 해설을 보지 말자.

아래 문장을 읽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법률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근대법의 기획에서 법은 그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재정되어야 한다.

생각나는 것을 아래에 적자

다 적어보았다면 아래 예시 해설을 보고 얼마나 적었는지 비교해보자.

예시 해설

1.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법률을 명확히 기술해야한다는 생각이 자리잡지 못했다.
2. 법률을 명확히 기술해야하는 이유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3. 이러한 근대법의 기획은 법률을 명확히 기술하고자하는 기획이다.
4. 법률은 명확해야하면서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

위의 생각을 모두 했다면 완벽, 3개 생각했다면 위의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통 위 질문을 하는 학생은 많게는 1개, 적게는 생각을 안한다. 생각없이 읽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이다. 항상 글을 읽으며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해야한다. 생각 안하고 이해없이 대충 옆에 끄적여놓은 것은 문제 풀 때 아무 의미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읽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지문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경제지문 제대로 읽기

(가) 중앙은행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경우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리면 시중에서 돈을 구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간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내구재에 대한 할부 구매 등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내 이자율이 낮아지면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이동한다. 해외 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인다. 이 모든 상황은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기업 투자, 민간소비, 순수출이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된다. 이런 이유로 통화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 통화정책은 크게 일반적 정책수단과 선별적 정책수단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정책수단이란 정책효과가 국민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선별적 정책수단이란 정책효과가 국민경제의 어떤 특정부문에만 선별적으로 미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다) 일반적 정책수단에 속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정책·지급준비율정책·재할인율정책이 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매각)하면 그 대가로 화폐를 지급하게(받게) 되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줄어든다). 지급준비율정책은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예금 중 대출 비율을 늘리면 은행의 수익이 증가하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때에 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예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이나 은행 내부에 반드시 남겨 두고 대출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예금 중 몇 %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야하는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법정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의 대출은 줄어들게 된다. 대출이 줄어들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재할인율정책은 고객이 제시한 약속어음을 은행이 할인하여 자금을 공급한 후, 은행이 이 어음에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다시 할인받아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적용하는 할인율(이자율)이 재할인율이다. 재할인율이 내려(올라)가면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늘릴(줄일) 것이다. 이는 통화가 공급(환수)되는 것으로 통화량이 증가(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이런 3가지 방식과 달리 선별적 정책수단은 은행의 대출에 대해 통화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출한도를 정하거나 금리를 강제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선별적 규제수단인 금리규제정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수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금리다. 따라서 강제로 금리를 정해놓은 선별적 정책수단이 아니다.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 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BIDAEWI MECHANISM POINT

EBS 연계의 기준

- 1 이민자 유입이 현지 경제에 끼치는 영향
- 2 국가 채무, 일반 정부 부채,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
- 3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
- 4 보호무역
- 5 회사채의 종류

EBS 연계의 기준

이민자 유입이 현지 경제에 끼치는 영향

EBS를 풀 땐 “이걸 맞추겠다”가 아닌 “이 제재를 완벽히 이해하겠다”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EBS 연계의 기준’에선 좀 더 심화된 제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EBS의 1번째 경제 제재는 이민자 유입이 현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다. 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이중차분법이 사용되었다. 경제학자 Card가 1990년 발표한 “The impact of the Mariel Boatlift on the Miami Labor Market”은 해당 EBS 지문의 모티브 논문이다.

모티브 논문에 대해 학습하면 EBS 지문보다 더 깊은 제재 학습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연구를 진행했고 EBS 지문에도 이중차분법이 당연히 나온다. 즉, 이번 지문에서 학습해야 할 것은 ‘이민자 유입이 현지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이중차분법’이다.

이 형태가 그대로 연계될지, 둘 중 하나만 심화시켜 연계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둘 다 확실히 학습해두자. 특히,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에 관한 연구보다 ‘최저임금’에 관한 연구에서 더 활발히 사용됐다. 그 말은 이중차분법에 초점을 맞출 경우 ‘최저임금’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p.s. 참고로 EBS 지문을 교재엔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EBS 수능특강을 구매해 책을 옆에 두고 풀어야한다.

EBS 교재를 풀기 전 제재 학습을 하고 EBS 교재를 풀면 된다.

그러니 이 교재의 제재 관련 지문을 모두 읽고 공부한 뒤

EBS 교재를 마지막에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자.